

대학생의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or Preference and the Personal Color of University Students)

정미란* · 안옥희**

(Mi-Ran Jung · Ok-Hee An)

Abstract

Colors are in the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all parts of human life. The color influences not only our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aspects, but also our way of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lor preference and the personal color of 100 university students. As results of researching current university students color preference when we compare it with pre-studied results, it shows some differences. In pre-studied, the blue and black marked high degree, but for recent students, it has appeared that warm color is highly preferred. Also warm color has shown as the personal col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blood type and color preference. It appears that the blood type A and B were preferred to cold color while the blood type of B and AB were preferred to warm color.

1. 서론

색채선호는 민족·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며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1].

색채선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감각을 정량적 수법으로 취급하여 성, 연령, 인종의 기호경향과 차이를 보거나 다변량 해석에 의해 감정요인에의 접근을 시도하여 의·식·주의 생활환경에 의해 감정요인에 관계가 있는 기호감정으로 발전시켜 실용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자사의 상품판매전략을 위하여 소비자의 선호색을 조사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로 성격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다[2].

성격진단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색채와 관련된 것으로는 PRC성격진단법(Predominant Response Color)이 있다. 이 방법은 41개의 숙어를 읽어주고 그들 말에서 받는 느낌에 가장 어울리는 색을 16종의 색표본을 하나 택하게 하는 테스트이다[3]. 그리고 심리학적 면에서는 MBTI 성격유형 검사를 들 수 있다. MBTI의 바탕이 되는 Jung의 심리유형론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인식기능),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 기능에 있어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Jung의 심리유형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MBTI에서는 인식과정을 감각(S : Sensing)과 직관(N : iNtution)으로 구분하여 사물, 사람, 사건, 생각들을 인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며, 판단과정은 사고(T : Thinking)와 감정(F : Feeling)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인식한 바에 의거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외향(E : Extraversion)과 내향(I : Introversion) 및 판단(J : Judging)과 인식(P : Perceiving)으로 구분하여 심리적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방향과 생활양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A형은 책임감이 강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행동에 옮기는 성격 소유자이다. B형은 창조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O형은 목적지향적이고 동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내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다. AB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며 A형과 B형의 어느 쪽 기질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려운 형이다.

색채선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떤 색 그 자체에 대해 조사하는 것보다 특정대상과의 관련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추상적인 색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색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사회적 요인이나 인성적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 연구원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이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5년 3월 Y대학생 중 색각이 정상인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사항,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색에는 제한을 주지 않았으며,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 크게 4개의 색채군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도, 백분율, 평균 그리고 χ^2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

MBTI는 네가지 분리된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Jung의 심리유형론에 따르면 선호경향이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경향을 말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4가지 이분척도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조사대상자의 성격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낸다면 ESFP형으로 사교적인 유형에 속한다<표 1>. 즉 사교적이고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건전한 상식이나 사물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1. 일반적 사항

변인	항목	N(%)	
연령	20~22세	55(55.0)	
	23세 이상	45(45.0)	
혈액형	A형	25(25.0)	
	B형	31(31.0)	
	O형	19(19.0)	
	AB형	15(15.0)	
성격 유형	에너지 방향	외향성	62(62.0)
		내향성	38(38.0)
	인식 기능	직관형	76(76.0)
		직관형	22(22.0)
	판단 기능	사고형	25(25.0)
		감정형	74(74.0)
	이행 양식	판단형	25(25.0)
		인식형	74(74.0)

표 2.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에 관한 사항

변인	항목	N(%)
색관심도	보통	27(27.0)
	조금 있음	50(50.0)
	아주 많음	23(23.0)
	M(SD)	3.96(±.71)
선호색	난 색	36(36.0)
	한 색	23(23.0)
	중성색	17(17.0)
	무채색	24(24.0)
혐오색	난 색	17(17.0)
	한 색	3(3.0)
	중성색	26(26.0)
	무채색	19(19.0)
	형광색	9(9.0)
	없 다	26(26.0)
자신의 이미지색	난 색	38(38.0)
	한 색	26(26.0)
	중성색	22(22.0)
	무채색	14(14.0)

조사대상자자의 일반적인 색선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색관심도, 선호색, 혐오색, 자신의 이미지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표 2>.

선호색 조사에서는 난색 > 한색 > 무채색 > 중성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외(1997)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선호색은 파랑 > 보라 > 흰색으로 한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안옥희 외(2000)의 연구에서는 검정 > 파랑 > 빨강 순으로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선호색을 파악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속성을 제한하여 특정 속성을 가진 집단의 선호색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혐오색은 중성색=없다 > 무채색 > 난색 > 형광색 > 한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혐오색이 없었으며 혐오색으로 응답한 색채군에서는 중성색이 많이 나타났다. 이정옥(1997)의 연구에서는 무채색 중에서 검정색, 안옥희(2000)의 연구에서는 난색 중에서 주황을 싫어하고 있어 선호색의 결과처럼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색채기호는 연령, 성별, 성격 및 시대나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신의 이미지색(Personal Color)은 개인의 통일성과 환경에의 적응에 의해 표출되는 개인의 색채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Personal Color는 그 사람의 특성을 표

현하는 인격적 색채로써 사람들의 생활색채 환경을 예
측하여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

표 3. 혈액형과 선호색 관계

변 인	N(%)				
	A형	B형	O형	AB형	전체
난 색	5(20.0)	12(38.7)	8(27.6)	11(73.3)	36(36.0)
한 색	9(36.0)	3(9.7)	10(34.5)	1(6.7)	23(23.0)
중성색	5(20.0)	5(16.1)	4(13.8)	3(20.0)	17(17.0)
무채색	6(24.0)	11(35.5)	7(24.1)	0(0.0)	24(24.0)
비 고	$\chi^2 = 21.555^{**}$				

**< .01

표 4. 혈액형과 자신의 이미지색 관계

변 인	N(%)				
	A형	B형	O형	AB형	전체
난 색	7(28.0)	13(41.9)	9(31.0)	9(60.0)	38(38.0)
한 색	9(36.0)	8(25.8)	7(24.1)	2(13.3)	26(26.0)
중성색	6(24.0)	5(16.1)	8(27.6)	3(20.0)	22(22.0)
무채색	3(12.0)	5(16.1)	5(17.2)	1(6.7)	14(14.0)
비 고	$\chi^2 = 6.927$				

표 5. 성격유형과 선호색 관계

변인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이행 양식		
	외향성	내향성	전 체	감각형	직관형	전 체	사고형	감정형	전 체	판단형	인식형	전 체
난 색	19(30.6)	17(44.7)	36(36.0)	25(32.9)	10(45.5)	35(35.7)	10(40.0)	25(33.8)	35(35.4)	12(48.0)	23(31.1)	35(35.4)
한 색	14(22.6)	9(23.7)	23(23.0)	17(22.4)	5(22.7)	22(22.4)	3(12.0)	20(27.0)	23(23.2)	2(8.0)	21(28.4)	23(23.2)
중성색	12(19.4)	5(13.2)	17(17.0)	17(22.4)	0	17(17.3)	7(28.0)	10(13.5)	17(17.2)	6(24.0)	11(14.9)	17(17.2)
무채색	17(27.4)	7(18.4)	24(24.0)	17(22.4)	7(31.8)	24(24.5)	5(20.0)	19(25.7)	24(24.2)	5(20.0)	19(25.7)	24(24.2)
비 고	$\chi^2 = 2.639$			$\chi^2 = 6.298$			$\chi^2 = 4.553$			$\chi^2 = 6.010$		

* missing value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표 6. 성격유형과 자신의 이미지색 관계

변인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이행 양식		
	외향성	내향성	전 체	감각형	직관형	전 체	사고형	감정형	전 체	판단형	인식형	전 체
난 색	21(33.9)	17(44.7)	38(38.0)	30(39.5)	7(31.8)	37(37.8)	13(52.0)	24(32.4)	37(37.4)	12(48.0)	25(33.8)	37(37.4)
한 색	19(30.6)	7(18.4)	26(26.0)	21(27.6)	5(22.7)	26(26.5)	5(20.0)	21(28.4)	26(26.3)	3(12.0)	23(31.1)	26(26.3)
중성색	11(17.7)	11(28.9)	22(22.0)	15(19.7)	7(31.8)	22(22.4)	3(12.0)	19(25.7)	22(22.2)	5(20.0)	17(23.0)	22(22.2)
무채색	11(17.7)	7(7.9)	14(14.0)	10(13.2)	3(13.6)	13(13.3)	4(16.0)	10(13.5)	14(14.1)	5(20.0)	9(12.2)	14(14.1)
비 고	$\chi^2 = 5.063$			$\chi^2 = 1.532$			$\chi^2 = 4.068$			$\chi^2 = 4.487$		

* missing value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이미지색을 난색 > 한색 > 중성색 > 무채색의 순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술한 선호색의 1순위와 일치하고 있어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혈액형에 따른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혈액형과 선호색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A형과 O형은 한색, B형과 AB형은 난색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적 요인이 색채선호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혈액형에 따라서 색채선호 경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A형과 AB형은 중성색, B형은 한색, O형은 난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혈액형이라도 연령에 따라 선호색이 달라지고 있다[5][6].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가 처한 환경이나 교육 또는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등의 영향과 함께 그 시대적 유행, 사회적·관습적 조건과 경험 등에 좌우된다고 본다.

또한 A형은 자신의 이미지를 한색으로 표현한 것에 비해, 그 외의 혈액형 소유자는 난색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혈액형과 자신의 이미지색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개개의 색과 그들 색의 성격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실험결과나 추측에 의해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난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며 감정이 풍부하고, 한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향적이며 이지적이라고 한다. 중성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며 직관형에 가까운 성격 소유자이고, 무채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내향적이며 사고형에 가까운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의 네 가지 성격유형 모두 난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 색 항목에 있어서는 직관형의 성격유형만 난색과 중성색을 자신의 이미지색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유형은 난색을 자신의 이미지색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색채기호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호색 및 혐오색과 성격특성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7]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이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전반적인 색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선호색은 난색 > 한색 > 무채색 > 중성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다수는 혐오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혐오색으로 응답한 가운데는 중성계 > 무채색 > 난색 > 한색의 순이다.

한편, 자신을 한가지의 색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색으로는 난색 > 한색 > 중성색 > 무채색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2) 혈액형과 선호색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련성 있었다. A형과 O형은 한색, B형과 AB형은 난색을 많이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색채선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색과 자신의 이미지색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람의 성격을 유형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는 혈액형은 색채선호에 유의적인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유형화 시킨 것과 색채선호와는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유형화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성격과 색채를 연관지어 그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격유형화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인 성격검사를 통해 얻어진 성격유형과 색채선호 및 이미지색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색선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연령별 특성이나 경시적 변화, 개인의 색경험 그리고 관심도 등에 대한 고찰이 계속 요구되며, 색채산업에 색선호를 파악한 결과를 접목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고을한 외,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미진사, 1994.
- [2] 이정옥·진현선, “대학생의 색기호와 색명 인식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1권 3호, 1997.
- [3] 안옥희 외, 생활색채디자인, 형설출판사, 1997.
- [4] 안옥희·손주희, “대학생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4권 2호, 2000.
- [5] 서정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색채선호와 연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3.
- [6] 정대식,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1995.
- [7] 백숙희 외, “색채기호도와 성격특성 및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충북기정학회지, 1994.